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홍순혜* · 박윤숙** · 원미순***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사회정착, 장애요인, 사회적응

*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전공 부교수

** 박윤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 원미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1. 문제제기

최근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문제가 새로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5년도 경 이후부터 이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언론 보도나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외로움, 사회적 소외감 등이 지적되었다(오혜정, 1995; 윤인진, 1999; 이소래, 1997; 이정우·김형수, 1996; 전우택·윤덕룡, 2001; 홍순혜 외, 2001).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의 통합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안혜영, 2001; 엄명용, 1999, 이우영 외, 2000; 홍순혜 외, 2001).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정부 및 사회의 수용과 지원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적응과 변화를 돕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모두 다 공감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나 정신적 지지 등에 관심이 치우쳐 왔다.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등이 피고용인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나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중태, 2002; 서재진, 2002; 윤인진, 1999; 전우택, 2000; 전우택 외, 2001). 따라서 남한의 지원이 물질적 혹은 경제적 지원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남한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 하게 되면 정부기관에서 입국조사를 마친 후에는 하나원에 입소하여 남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배우게 된다. 하나원은 1999년도에 개원한 시설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남한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2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남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 갖추어 내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애요인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에 배치된 직후부터 그들과 모든 일에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다.¹⁾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경찰청 형사들이 맡고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윤인진, 1999; 홍순혜 외, 2001). 따라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조차도 확인하기에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누구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갖고 있는 개인적 정착 장애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어떤 개인적 요인들이 정착초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게 해 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의 개념

최근 몇 년 사이에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남한사회적응 및 지역사회정착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리적인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의 결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이 성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적응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개념은 지역사회정착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법안 및 여러 연

1)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특별보호와 일반보호로 나누어진다. 특별보호는 대부분 지역사회정착 후 약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제공되는데 신변보호담당관이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특별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근에서 특별보호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특별보호기간이 끝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집중적인 특별보호와는 달리 1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일반보호 대상자가 되게 된다.

구들에서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정착은 상호교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기영, 2001; 통일부, 2002; 홍순혜 외, 2001).

윤여상(2001)은 사회적응을 '개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며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 문화양식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해 민성길·전우택(1995)은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들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전우택(1997)은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기영(2001)은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두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경제적 적응은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획득·유지하고,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그 속성에 익숙해져서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정치사상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 등은 사회문화적 적응 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은 새로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정착은 이러한 사회적응의 결과로서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응을 하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갖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은 여러 편이 있다. 전우택·윤덕룡(200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미취업 문제가 가장 큰 정착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 자신은 직장을 얻기 힘든 이유를 자신의 능력보다는 남한 사람들의 편견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컸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가까이서 돕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미취업 원인을 직업수행능력의 부족이라고 보고 있었다(윤인진, 1999; 김중태, 2002; 전우택, 2000; 전우택·윤덕룡, 2001; 전우택 외, 2001). 자립의지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립의지가 부족하다고 대답한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약 35% 밖에 되지 않았으나(전우택·윤덕룡, 2001) 북한이탈주민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전우택·윤덕룡, 2001; 전우택 외, 2001)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어려움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복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 탈북시의 공포감, 남한정착에서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편견, 무시, 배타적 태도 등이 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오혜정, 1995; 윤인진, 1999; 이금순, 1997; 이소래, 1997; 이철우, 1996). 동독 탈출자에 대한 한 연구(신율, 1997; 엄명용, 1999 재인용)는 동독에서부터 습득된 쉽게 변하지 않는 사고체계 또는 인식체계가 동독 탈출자의 사회적 소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도 외로움과 소외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래어나 한문에 대한 지식부족,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기술 부족, 남한 사회의 제도, 법,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자본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김중태, 2002; 윤인진, 1999).

3)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및 업무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제도는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던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당시 입국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군인이나 당 간부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또한 당시의 남북관계 현실상 이들의 위장귀순여부를 가리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들을 북한 간첩의 테러 및 위협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필요하였다. 따라서 초기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함은 물론 이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신변보호담당관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유형이 노동자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신변 위해 요소가 희박해지고(전우택·윤덕룡, 2001) 따라서 공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와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권적 대우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어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난민구호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게 되었다(서재진, 2002).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제도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증하고 이들의 유형은 고학력의 중요 인사에서 저학력의 노동자로 변화되고 이들에 대한 남한의 지원은 국가유공자 수준에서 난민구호의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라는 역할이외에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윤인진, 1999).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을 졸업하고 퇴소할 때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원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거주 지역에 안내하고 주택확보나 교육보호, 취업과 직업훈련, 교회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지역정보안내, 근로현장 방문, 강연연결, 심리적 위로와 조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혜 외, 2001).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들에게 지역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일들에 도움을 요청하며 개인적인 일까지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도움, 가족모임 및 여가활동에 초대, 애경조사 참여, 여행동반 및 운전 등 세부적인 일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남한에서 새로운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신변보호담당관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들을 통해 남한 사회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전우택 외, 2000).

4) 신변보호담당관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시의 장애요인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2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우택 외(2000)의 연구로 북한이탈주민과 보호담당관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담당관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담당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애로사항들을 시기별로 개방형으로 적도록 하였다. 이런 질적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가치관 혼란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담당관을 감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갖는다. 자신들의 생각을 보호담당관들에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현하며, 보호담당관보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정보에 더 의존하려 한다. 남한의 법, 제도, 경제방식, 언어 등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며 남한 주민들에 대해 심리적인 장벽을 느낀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남한 정부의 정착지원금 액수에 대해 불만을 갖고 남한 정부나 보호담당관이 더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며 모든 문제를 보호담당관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등 자립 의지가 부족하다. 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다닌다든지 예기치 않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돌출행동을 나타낸다. 무절제한 경제생활, 한탕주의나 낭비성을 보이며 생활절제 능력의 부족을 보인다. 편한 일만 하려 하며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노동을 통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한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지적한 위와 같은 애로사항들 중 적응초기 3개월 이내에서는 불안과 불신,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었다. 3개월-2년 사이에는 남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불만,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돈 벌 궁리는 하는 등의 자립의지 부족, 경제생활 미숙 등이 새로운 주요 애로사항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돌출행동, 불안과 불신, 사회적 부적응은 정착기간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사이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이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가치관 혼란, 남한정부의 지원에 대한 불만은 정착 3개월 이전에는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3개월-2년 사이에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질적 연구의 결과들이므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애로사항의 경우도 각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느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홍순혜 외(2001)는 북한이탈주민과 신변, 취업, 거주지보호담당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우택 외(2000)의 연구에서 밝혀진 애로사항들과 신변보호담당관들과의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간의 가치관 혼동을 보이며 보호담당관보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더 신뢰하고 보호담당관들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

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며 정상적인 노동보다 쉽게 돈버는데 관심이 더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순빈도와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변수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장애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²⁾

5)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별로 없다. 홍순혜 외(2001)의 연구는 다양한 업무를 특정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상당수가 신변보호 업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변보호업무를 어렵다고 느끼는 신변보호담당관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업무의 내용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성실한 태도가 업무부담에 관련성을 갖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 이외의 이유로는 수행해야 할 업무나 역할의 불분명성, 근무시간의 과중과 불규칙성, 업무내용 자체의 어려움, 관계부처 간의 협력체계 미비 등이 언급되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이 업무부담을 크게 느낀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변수들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그 만큼 신변보호담당자들이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의 불분명성, 업무시간의 과중성 등은 행정적 해결을 통해 그들의 업무를 한 층 원활히 하여 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는데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좀더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 시 어떤 장애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들(자

2) 본 연구는 홍순혜 외(2001)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동일 데이터를 사용해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립능력 관련 요인, 생활태도 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개인적 장애요인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요인에서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는가?

둘째, 지역사회 정착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어떤 장애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부담과 가장 큰 관련성을 갖는가?

2)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01년 4월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수행되었으며, 응답자들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무기명으로 자기기입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경기, 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제주도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수집되어 지역별로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82.4%(122명)가 남자이고 17.6%(26명)가 여자였으며 연령 대는 40대(50%)가 가장 많고, 50대(27%)와 30대(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1명에서부터 4명(1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담당하여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3) 조사방법 및 조사도구

조사는 설문지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1)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시의 개인적 장애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전우택 외(2000)의 연구에서 밝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상에서의 애로사항들과 보호담당관들과의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지역사회 정착시의 개인적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이 만들어졌다.

척도는 2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에 대해 신변보호담당관들이 현재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들의 평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3)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신변보호담당관 모집단 전체 숫자와 지역별 분포, 조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 자세히 공개하지 못함을 밝혀둔다.

회 정착시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질문된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큰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1개 항목의 점수 분포는 1-5점이며, 3점이 중간점수이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4개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하위요인들은 각각 ① 자립능력에 관련된 요인(6문항), ② 생활태도와 관련된 요인(4문항), ③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련된 요인(6문항), ④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4문항)이다.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관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Ch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6이상을 나타내었다. 신뢰도 분석에 대한 자세한 결과와 각 하위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 검사 결과

요 인	항 목	factor loading	eigen-value/ % 분산	Chronbach Alpha
자립능력 관련 요인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함	.776	3.614/ 18.070%	.8330
	정상적인 노동보다 쉽게 돈 버는데 대한 관심이 많음	.732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함	.662		
	모든 문제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다 해결해주기를 기대함	.671		
	정직하지 못함*	.578		
	신변보호담당관보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더 신뢰	.499		
생활태도 관련 요인	법을 잘 준수하지 못함*	.656	3.002/ 15.012%	.7307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함*	.747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하지 못함*	.574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못함*	.707		
사회적 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581	2.917/ 14.585%	.7938
	남한의 문화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함*	.583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짐	.649		
	남한과 북한간의 가치관 혼동을 보임	.759		
	남한의 언어(외국어 한문 등)를 잘 이해하지 못함	.528		
	남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짐	.626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음	.594	2.044/ 10.219%	.6412
	신변보호담당관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함	.578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함	.528		
	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해 만족 못함*	.594		

* 설문지에서는 긍정적으로 질문된 문항임. 여기서는 역점수화되어 있음.

(2)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관련 변수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장애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관련 변수는 3가지를 질문하였는데, 각각 신변보호 업무량의 과중

성, 신변보호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이다. 신변보호 관련 업무량의 과중성은 ‘전혀 과중하지 않다’(1점), ‘과중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과중하다’(4점), ‘매우 과중하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신변보호업무의 난이도도 ‘매우 수월하다’에서부터 ‘매우 힘들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세 변수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이나 관계성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어떤 요인들이 가장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수가 다르므로 총점으로서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므로 총점을 다시 항목수로 나누어 1개 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구해 이를 비교하였다.

각 장애요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기간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으며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4개 장애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4개 장애요인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과중과 업무난이도,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4개 장애요인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들어간 장애요인들을 포함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확대인자(VIF)를 함께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은 4개 하위 요인들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점수 합산을 항목 수로 나누어 1개 항목의 평균점수로 전환을 시킨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큰 것을 의미한다. 중간점수인 3점을 넘는 요인은 자립능력과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으로,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 및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관한 태도 관련 요인은 부정적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표 2> 요인별 장애정도

요 인	Mean	S.D.	95% 신뢰구간
자립능력	3.5122	.7795	3.3731-3.6513
생활태도	2.8767	.7509	2.7530-3.0004
사회문화적 적응	3.1823	.6753	3.0690-3.2955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관한 태도	2.7993	.7203	2.6798-2.9188

2) 지역사회 정착기간과 장애요인들

조사대상 신변보호담당관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기간은 6개월 미만이 44.6%, 7개월에서 12개월이 15.5%, 13개월에서 18개월이 4.1%, 19개월부터 24개월이 14.2%, 25개월 이상이 21.6%를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이고 있는 요인별 장애의 정도와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기간과의 상관관계를 <표 3>에서 보면 4개의 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정착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요인들은 정착기간이 길어져도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기간과 장애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요 인	Pearson r
자립능력	-.106
생활태도	-.131
사회문화적 적응	-.190*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032

*p<.05

3) 장애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모든 장애요인들은 서로 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능력에 관련하여 장애가 클수록 생활태도와 사회문화적 적응 면에서도 장애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요 인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생활태도	.527***		
사회문화적 적응	.575***	.507***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522***	.447***	.479***

***p<.001

4)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조사대상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량에 대해 6.1%만이 업무량이 적다고 답한 반면 38.5%는 많다고 답하였다. 업무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3.5%만이 업무수행이 쉽다고 답한 반면 약 50%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업무량이 많고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는 보통이거나 좋은 편이라고 답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 나이와 함께 4개 장애요인들을 함께 회귀식에 넣어 다중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VIF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가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

요인	B	S. E.	β	t-value	tolerance limit	VIF
(상수)	.859	.810		1.059		
성별	.145	.224	.072	.646	.684	1.462
나이	7.711E-03	.012	.068	.632	.721	1.387
자립능력	.209	.127	.208	1.642	.525	1.906
생활태도	.205	.117	.201	1.749@	.637	1.570
사회문화적 적응	1.287E-02	.142	.011	.090	.560	1.786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1.64E-03	.123	-.002	-.013	.650	0.538

R²(수정된 R²) = .147(.097) F=2.907*

@p<.1, *p<.05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과중을 분석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 관련 요인만이 10% 유의수준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태도에서 장애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 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장애정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표 6>을 보면,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업무난이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관련 요인에서의 장애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에 관련된 장애정도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 난이도

요 인	B	S. E.	β	t-value	tolerance limit	VIF
(상수)	1.036	.784		1.321		
성별	-3.24E-02	.216	-.016	-.150	.651	1.537
나이	1.036E-02	.012	.092	.887	.696	1.436
자립능력	.529	.126	.513	4.190***	.501	1.995
생활태도	.166	.112	.158	1.475	.650	1.538
사회문화적 적응	-.117	.132	-.102	-.886	.568	1.762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179	.119	-.161	-1.510	.664	1.506

R² (수정된 R²)=.257(.212) F=5.703***

***p<.001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나이와 더불어 4개의 장애요인들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을 때,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이 각각 관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태도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보다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의 장애정도가 크면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부정적이었다.

<표 7>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요 인	B	S.E.	β	t-value	tolerance limit	VIF
(상수)	1.886	.629		2.998**		
성별	-1.96E-03	.172	-.001	-.011	.676	1.480
나이	8.771E-03	.009	.093	.925	.719	1.391
자립능력	9.901E-02	.099	.118	.999	.523	1.910
생활태도	.303	.091	.355	3.334***	.640	1.562
사회문화적 적응	-.175	.109	-.183	-1.609	.564	1.773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224	.095	.247	2.358*	.662	1.511

R²(수정된 R²)=.259(.216) F=5.947***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착시 갖고 있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장애요인들을 그들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초기에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장애와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북한이탈주민들 본인들에게 질문하여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것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접 질문하여 얻어낸 그들의 문제점보다 한층 객관적이며 다양한 내용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이란 외부자의 입장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획일적인 판단이나 편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런 제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능력과 사회문화적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자립능력 관련 측면에서 장애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4개의 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만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다른 요인들은 정착기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 남한 언어에 대한 이해 등은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습득이 되는 반면, 북한에서의 오랜 생활 속에서 형성된 전반적인 생활태도나 사고방식 등은 정착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정착초기 단계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우택 외(2000)는 그들의 연구에서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적응초기 3개월 이내에서는 불안과 불신,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을, 3개월-2년 사이에는 본 연구에서 자립능력으로 정의된 내용들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전우택 외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요인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능력 면에서 장애정도가 클수록, 생활태도 면에서도 장애정도가 크고, 사회문화적 적응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 이상의 요인들에서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장애요인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에, 자립능력은 업무난이도에,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생활태도에 장애가 크면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각하며, 자립능력 요인에서 장애가 클수록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느끼고, 생활태도와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거나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못하는 생활태도 관련 장애요인들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를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활태도 관련 요인은 <표 2>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아니지만 이 요인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를 가장 어렵게 하고 있었다. 자립능력 관련 요인은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장애정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신변보호담당관들에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능력이상의 대우를 요구하고 쉽게 돈을 벌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모두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자립을 돕는 자신들의 업무를 매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불만적 태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전우택 외의 연구(2000)는 본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장애가 클수록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이 악화된다고 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의 4요인을 회귀식에 함께 넣어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문화적 적응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 그 어느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능력에 관련된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보다 쉽게 돈 버는데 관심이 많다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우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문제 해결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하는 태도는 취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정착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도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변화 개입이 필요시 된다.

또한 법 준수, 약속 이행,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 등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도 필요시 된다고 하겠다. 이런 기본 소양은 남한에서는 유아 때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되게 되는 것이며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습득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동독 탈출자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교육이 그들이 동독으로부터 가지고 온 사고체계에 인식체계를 바꿀 수 없었고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신율, 1997; 엄명용, 1999 재인용). 윤인진(1999)도 성인이 될 때까지 공산주의 체제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의 인성이나 사고방식을 단기간의 재사회화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통해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관

성 있게 사고방식 및 태도에 대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식적 교육을 통한 접근으로는 하나원의 인성 및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및 도덕교육이나 민주시민 소양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수의 장애요인에서 부정적 점수를 보이고 있는 고위험 집단을 선정해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원 퇴소를 앞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신변보호담당관의 공식적이며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남한에 아무런 비공식적 지원망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로서는 자신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신변보호담당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기대하며 또한 결과적으로 실망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입장에서든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와 의존이 크면 업무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양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신변보호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아닌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신변보호담당관의 정착지원 역할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고 이들이 행하던 역할은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이나 민간부분 혹은 취업보호담당관 등의 정착 관련 타 공공부문, 그리고 지역협의회와 같은 민관협력부문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지역정착지원에서 사회복지사나 민간자원봉사자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들은 사회복지사나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들도 기대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정착지원태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낮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면 이 또한 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장애요인 이외에도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즉 제도적 측면, 남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수용정도, 신변보호담당관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에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중태.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실태와 지역사회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지역 단체장 세미나 자료집』, 8-17.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
- 서재진. 200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연구』, 제11권, 1호.
- 신율. 1997.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고찰 - 동독 탈출 주민의 사회적응 문제의 고찰을 통한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응 대책 개선을 위한 소고”, 『통일연구』, 제2권, 219-240.
- 안혜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179-239.
- 엄명용. 1999.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한국사회복지학』, 제37호, 271-306.
- 오혜정. 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의 적응실태』,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상. 200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 윤인진. 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이금순. 1997. “탈북자의 사회적응 대책 및 그 문제점”, 『통일』, 189, 68-77.
- 이기영. 2001.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 발표논문.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이정우·김형수. 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우. 1996.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정책분야,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통일원.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적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서울: 오름.
- 전우택·윤덕룡. 200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보고』,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전우택·윤덕룡·민성길. 2000.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에 따른 갈등구조와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2001.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통일연구』, 5(1): 157-184.
- 통일부. 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 홍순혜·박윤숙·원미순. 2001.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통일부.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Obstructing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and Job Burden Perceiv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Them

Hong, Soon-Ha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Women's University)

Park, Yun-Sook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Women's University)

Won, Mi-Soon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at obstruc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changed and what social skill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adjust to South Korea. Personal obstacles were measur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because they are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with them. They can even identify the personal obstacles not perceived by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mselves. Twenty-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sonal obstacles and was found to comprise 4 obstructing factors: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life style related fact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related factor, and attitude toward police officer's support related factor. Among them,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had the highest negative score. The study further revealed that self-support ability and life style related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burden of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thical and moral education for the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